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어떤 것을 만들 때는 호기심과 희망으로 매일 만들면서 하루하루 더 좋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그러나 정작 사용할 때는 보람을 못 느끼기도 한다. 이는 완성되면 수고도 일도 끝나서 사용하면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사용할 집이나 쓸 것을 만들 때는 희망에 불타서 기뻐 좋아한다. 수고하여 다 만든 후에는 한동안은 보람을 느끼며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처음 마음을 다 잊고 보통으로 보게 된다. 이전의 좋아하던 삶을 잊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다른 것을 사용하다가 불편을 깨달으면, 그제야 값없이 대하던 마음을 깨닫고 다시 가치 있게 대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3. 줄 것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가치와 보람의 생각이 무기력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고,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된다.
4. 좋은 것을 받았으면, 쓰고 누리며 살아라. 고통으로 넘어갔을 때, 그제야 지난날에 쓰고 살던 것이 보람됨을 기뻐하며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대한 것도 그러하니라.
5. 주의 품을 떠나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살아 봐야, 그제야 주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뼈가 저리게 깨닫는다.
6.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은 은혜와 받은

것들을 잊고 무기력하게 된다.

7.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
8. 없을 때는 그렇게도 아쉬워하며 원하고, 있을 때는 잊고 산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이다.
9.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면, 가치가 상실된다.
10. 변질된 마음과 생각이 다시 온전하게 되면, 가치가 회복된다.